

1990 년대이래 중-조 경제관계 및

그가 조선 사회 생활에 미친 영향

진용산 (중국 길림성 동북아연구센터 소장 교수)

중국과 조선은 지정학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장기간 두 나라는 우호적인 이웃으로 지내왔었다. 조선반도의 특수한 전략적 위치로 하여 중국 정부는 중-조 관계를 줄곧 중요시하여 왔으며 경제협력관계는 중-조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특히 1990 년이래 중-조 경제관계는 조선의 생사에 관계되는 대사로 되고 있었다. 본문은 주로 1990 년대 이후 중-조 경제관계에 대해 상세히 논술하고 중-조 경제관계가 조선 사회 생활에 미친 영향을 간략하여 분석하려 한다.

1. 1990 년이래 중-조 경제관계의 기본 상황

중-조 경제협력관계는 대체로 국가 급 경제무역관계와 민간 급 경제무역관계 및 중국정부가 북조선에 대한 경제 원조 등 3 가지로 나눌수 있다.

첫째, 국가 급 경제무역관계

장시기간 북조선은 경제건설에서 "자립적인 민족 경제의 건설", "중공업을 우선발전", "군사와 경제발전병행 발전" 등 방침을 고수하였기에 대외무역의 역할은 극히 약화되었다. 대외무역은 단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원자재와 자본재의 수입에 필요한 외화조달의 기능만 충당하였으므로 북조선의 대외무역은 완벽하게 발전되지 못하였다. 1990 년 북조선의 수출입총액은 47.2 억 달러였고 2001 년에 이르러 더욱 15.1 억 달러로 위축되었다.

1990 년대 전까지 구소련은 북조선의 제일 큰 무역파트너였다. 1990 년 소-조 무역총액은 25.7 억 달러로서 북조선

무역총액의 54%를 차지하였다. 이에 비해 1990년 중-조 무역총액은 단지 5.54억 달러로 북조선 무역총액의 11%를 차지하였으며 북조선과 구소련 무역총액의 1/5 정도였다.

1991년에 이르러 북조선과 구소련의 무역총액은 단번에 4.6억 달러로 줄어 1990년 무역총액의 1/5 정도로 되었다. 그 후 러시아와의 무역총액은 계속 하강되어 1999년에는 0.5억 달러로 1990년의 1/100 정도 되었다.

러시아와의 무역이 대폭 줄어가는 데 반해 중-조 무역은 오히려 일정한 발전이 있었다. 1980년대 말까지 중-조 무역총액은 줄곧 5억 달러 정도였지만 1991-1993년 기간 연속 3년 동안 지속적인 급성장을 하였다. 즉 1991년에는 6.2억 달러, 1992년에는 6.9억 달러, 1993년에는 9.3억 달러로 급속히 상승하였다. 1994년부터는 북조선의 원인으로 무역액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1999년에는 3.7억 달러로서 80년대 말의 5억 달러에 비해 26% 하강되었다. 하지만 2000년에는 중-조 무역총액이 4.88억 달러로 증가되어 80년대 말의 정도에 이르렀으며 2001년 1월부터 7월까지에는 무역총액이 3.54억 달러로서 2000년 같은 시기 보다 67.4% 증가하였다.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중국은 북조선의 제일 큰 무역파트너였으나 1995년부터 일본과의 무역총액이 중국을 훨씬 초과함으로써 하여 일본이 제일 큰 무역파트너로 바뀌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조선의 중요한 무역파트너이다. 현재 중-조 무역액은 조선 대외무역총액의 절대부분을 점하고 있고 중국은 줄곧 조선에 식량, 원유, 코크스, 기계 등 중요한 전략적 물자를 제공하고 있다.

(표 1) 조선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식량, 원유상황

(단위: 만 톤)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	------	------	------	------	------	------	------	------	------

식량	수입 총량	129.0	83.0	109.3	49.0	96.2	105.0	163.0	103.6	10
	중국상품수입량	30.3	62.0	74.0	30.5	15.3	54.7	86.7	27.0	
	비 중(%)	23.0	74.0	67.0	62.0	15.0	52.0	53.0	26.0	
원유	수입 총량	189.0	152.0	136.0	91.0	110.0	93.6	110.6	60.9	3
	중국상품수입량	110.0	110.0	105.5	83.0	102.0	93.6	50.6	50.3	
	비 중(%)	58.0	72.0	77.0	91.0	92.0	100.0	45.0	82.0	

자료: 대한 무역 진흥공사 《북한 대외무역 동향》 각 연도

표 1 에서 보면 1991 년부터 1999 년까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식량은 북조선 식량 수입 총량의 50%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적은 경우에도 20% 이상이었다. (변경무역과 친척친우 방문을 통해 수입한 식량 수량은 포함하지 않음) 이것은 중국이 북조선의 제일 큰 식량 공급 국가이라는 것을 충분히 말해주고 있다. 원유의 수입상황은 더욱 그러하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유는 보통 북조선 연간 원유 수입총량의 70%--80%로서 제일 많은 경우 90%-100%이고 제일 적은 경우에도 45% 이상이다. 모두다 아다실이 한 나라에 있어서 석유는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관계되는 중요한 전략적 물자이며 중국은 줄곧 북조선의 믿음직한 석유 공급 국가로 되어왔다.

둘째, 민간 급 경제무역관계

중-조 민간 급 경제 무역관계는 주로 변경무역을 가리킨다. 변경무역은 중국 정부에서 낙후한 변경지역의 경제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나라간 경제교류를 진행함으로써 변경지역의 경제를 추진시키는 국제무역의 일종 형식이다. 다시 말하여 변경무역이란 중국 정부가 규정에 의해 변경지역의 무역 상품에 대하여 면세 혹은 原稅 정책을 실시하는 무역이다. 변경무역은 변경소액무역(邊境小額貿易)과 변민호시무역 (邊民互市貿易)으로 나뉜다. 변경소액무역은 국가 비준을 받은 변경지역에서 변경소액무역 부문의 관리를

받는 회사들이 변경지역의 세관을 거쳐 이웃 국가와 진행하는 무역을 가리킨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책 제한을 받는 제품을 제외한 기타 제품에 대하여 관세와 增值稅의 50%를 삭감하며 무역총액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는다. 변민호시무역은 국경선 20 km이내의 범위에 한하며 국무원의 허가를 받은 개방지대 혹은 시장에서 매 인당 매일 인민폐 1000 원 이하의 생활용품에 대한 무역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무역상품에 대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90년대 상반기 중-조 변경무역과 민간 바터무역은 급속히 발전되었다. 북조선은 구소련의 해체와 동유럽의 급변으로 사회주의권 시장을 잃게 되었고 무역환경과 무역조건의 악화로 새로운 무역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급선무로 되었다. 국제형세 변화의 영향으로 중국과 구소련, 동유럽 나라간의 협상무역이 현금지불 무역으로 바뀌고 바터무역이 달러로 계산하기로 되었기에 중국과 동유럽 나라간의 바터무역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1990년대 초까지도 중국은 외화가 극히 부족한 나라로서 바터무역이 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새로운 국제환경에 적응하고 바터무역의 신속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원과 경제무역부에서는 바터무역에 대해 우대정책을 실시하였으며 길림성과 료녕성 정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우대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는 중-조 변경무역과 바터무역의 발전에 상대적으로 느슨한 정책 환경을 제공하였고 중-조 변경무역과 바터무역을 힘있게 추진하였다 (표 2를 참고). 1991년 길림성과 조선의 무역총액은 92.72 백만 달러로 1990년에 비해 250.0% 증가되었고 1992년에는 217.58 백만 달러로 1991년에 비해 135.0% 증가되었으며 1993년에는 471 백만 달러로 1992년에 비해 116% 증가되었다.

그러나 1995년부터 길림성과 조선의 무역은 다시 기복 상태에 빠졌다. 1998년 무역총액은 70.22 백만 달러로 1997년에 비해 46.1% 하강되었고 1993년의 471 백만 달러에 비해 85% 하강되었다. 그 구체적 원인을 보면 아래와 같다. 북조선은

연속되는 자연재해로 국민경제가 엄중하게 파괴되었고
 변경무역과 바터무역에 수요되는 상품이 고갈되었으며
 지불능력과 상업신용이 대폭 하강되었다.

중국 측의 원인을 보면 1994 년부터 국민경제의 거시적 조절을
 진행하였고 자금 긴축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인프라건설 규모를
 축소하였다. 동시에 세금 제도를 개혁하였고 단일 환율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또 수입정책을 조절하여 화학비료, 강철
 등 상품은 등록제도와 수량제한 제도를 실시하였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100%의 관세를 징수하고 수입항구를 지정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1995 년부터 중국은 일부분 상품에 대해
 제한정책을 실시하였고 석면, 베니어합판 등 제품들은 등록
 제도와 100% 관세징수 정책을 실시하였다. 변경지역의
 수입해산물의 면세 정책을 취소하고 잠시동안 식량과 디젤유
 수출을 금지하였다. 동시에 입찰공시 수출상품의 품종을
 증가함으로써 변경무역과 바터무역은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하였다. 길림성과 북조선의 변경무역과 바터무역은
 1999 년에야 회복되었으며 상승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2000 년 무역총액은 113.63 백만 달러로 1999 년에 비해 44%
 증가되었다. 그중 수출총액은 62.8% 증가되었지만 수입총액은
 5.4% 하강되었다. 2001 년 1 월부터 11 월까지의 무역총액은
 2000 년의 같은 시기에 비해 33.4 % 증가되었는데 그중
 수출총액은 29.2% 증가되었고 수입총액은 55.0% 증가되었다.

(표 2) 1990 년대이래 길림성과 북조선의 무역 상황

년도	수출입 총액		수출 총액		수입 총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91	92.72	250.0	48.44	232.0	44.28	272.0
1992	217.58	135.0	97.92	102.0	119.66	170.0
1993	471.00	116.0	-	-	-	-
1994	161.05	-65.0	89.78	-	71.27	-
1995	97.58	-39.4	65.77	-26.7	31.81	-55.4

1996	95.35	-2.3	67.33	2.4	28.02	-11.9
1997	130.35	36.7	91.50	35.9	38.85	38.7
1998	70.22	-46.1	47.74	-47.8	22.48	-42.0
1999	78.42	11.0	57.79	21.0	20.62	-8.3
2000	113.63	44.0	94.11	62.8	19.51	-5.4
2001	134.98	33.4	107.79	29.2	27.19	55

(단위: 백만 달러, %)

주해: 1. 자료: 길림성정부 대외무역경제합작청 연도별 통계자료

2. 2001년 수치는 1월부터 11월까지의 수치

3. 통계 자료는 변민호시무역 수치를 포함하지 않음

변경무역은 길림성의 대외 무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997년까지 길림성 변경무역회사는 모두 103개이고 1997년 무역총액은 9668만 달러이다. 그중 북조선과의 변경무역총액이 9101만 달러로 변경무역총액(대북조선과 대러시아 무역 포함)의 94.1%이다.

변민호시무역도 길림성 무역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1997년 6월 중국과 북조선은 두만강 지구에 첫 변민호시무역구인 권하-원정리 무역시장을 설립하여 중-조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변경지역 인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 시장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개장하고 거래 방식은 주로 바터무역이며 거래되는 상품들로는 중국의 입쌀, 밀가루, 복장, 신발과 스타킹, 흰 술, 맥주, 담배 등이고 북조선의 말린 오징어 등 해산물이다. 북조선의 유관 부문에서는 어떤 형식의 세금도 징수하지 않고 중국의 참가 인원은 변경지역의 조선족이 위주였으며 참가 인원이 최고로 하루에 700여명까지 되었다. 이 시장의 무역액은 유관 부문의 통계에 포함되지 않으며 중국과 북조선의 무역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길림성과 북조선의 변경무역상품 구조는 변화되고 있다. 1990년대 초 길림성이 조선에 수출하는 상품은 주로 옥수수, 돼지 고기, 육류 통조림, 설탕, 가공유, 자전거, 녹음기, 흑백 TV, 유리 제품 등이었고 수입 상품은 주로 화학비료, 목재, 철강, 고철, 자동차(트럭, 승용차), 비철금속, 화학공업원료, 수산물, 해산물 등이었으나 1990년대 후반기에는 주로 옥수수, 입쌀, 밀, 석탄, 휘발유, 철강 및 철강제품 등이 주요한 수출 상품이였다. 예를 들면 2000년 집안과 립강 지구의 변경무역에는 화학비료, 석탄, 가공유 등이 대량 증가되어 대종 품종으로 되었다. 1990년대 후반기 길림성이 주요한 수입 상품은 원목, 침목, 강철 반제품 등이다.

료녕성과 북조선의 무역은 주로 단동시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조선 전쟁이후 70년대 말까지 단동 세관은 주로 중국과 북조선의 국가 급 바터무역을 책임지었고 민간 무역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단동시와 북조선의 변경무역은 1982년에 시작하여 1992년 중국 정부가 비교적 자유로운 변경무역 정책을 실시한 후부터 신속히 발전되었다. 2000년 8월까지 단동시에는 변경무역 회사가 총 126개였으며 그중 40개는 국가 급 회사였다.

1998년 전국 중-조 변경무역 총액은 13058.1만 달러로 그중 단동시의 무역총액은 7480.5만 달러였다. 이는 전국 변경무역총액의 57.3%이다. 1999년 단동시의 중-조 변경무역은 5585.2만 달러로 급속히 줄어들었는데 2000년 상반기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단동시와 북조선의 무역총액은 11827만 달러 (그중 수출총액이 11243만 달러, 수입총액이 584만 달러)로 1999년에 비해 37%가 증가되었다. 그중 수출총액은 43.6% 증가되었지만 수입총액은 25.7% 줄어들었다. 2000년 상반기 단동시의 무역총액에서 중-조 변경무역 총액이 8690만 달러로 같은 시기 중-조 무역 총액의 73.5%이다. 이로부터 변경무역이 중-조 무역에서 아주 중요한 지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을 참조)

(표 3) 1998-1999 년 중-조 무역과 변경무역 상황

	1998 년			1999 년		
	수출 총액	수입 총액	합계	수출 총액	수입 총액	합계
중-조 무역 총액	35570.5	5731.3	41301.8	32866.0	4170.9	37036.9
-단동 경유	10797.0	2493.3	23239.0	17043.7	1683.6	18727.3
(비 율) %	58.5	43.5	56.4	51.9	40.4	50.6
변경 무역	9292.1	3765.9	13058.1	-	-	-
-단동 경유	5850.3	1630.2	7480.5	4304.1	1281.1	5585.2
(비 율) %	63.0	43.3	57.3	-	-	-
변경 무역 비율	-	-	-	-	-	-
-전지역 %	26.1	65.7	31.6	-	-	-
-단 동 %	28.1	65.4	32.2	25.3	76.1	76.1

(단위: 만 달러, %)

자료: KOTRA, 한국 《통일경제》 2001 년 제 5-6 호 제 74 페이지

단동시의 변경무역 상품구조는 줄곧 변하고 있다. 1990 년대 말 단동시의 상품구조 상황은 아래와 같다. 1997 년 전까지 식량은 단동시의 대종 수출 상품으로서 수출량이 매년 15-18 만 톤이었고 수출 총액이 단동시 수출총액의 40%이었다. 1998 년부터 식량 수출이 감소되기 시작하여 1998 년 10 월까지의 수출량은 12 만 톤으로 1997 년 같은 시기에 비해 70% 줄어들었고 1999 년 10 월까지 수출량은 7 만 톤으로 1997 년 같은 시기보다 84% 줄어들었다. 2000 년에 들어서면서 북조선에 대한 식량 수출이 더 감소되었다. 1999 년부터 단동시에서 북조선에 수출하는 상품 중에는

방직제품과 복장원단(위탁 가공용)이 급속히 증가되어 1999년 상반기 북조선 무역총액의 40%에 달했다. 이 밖에 단동시의 수출 상품으로는 가정용전자제품(7-8%), 기계설비, 석유제품, 농업용비닐박막, 일상용품, 화학 제품, 건축자재 등이다. 단동시의 수입 상품구조도 북조선의 경제상황에 따라 변하고 있다. 1997년부터 1998년까지의 대중 무역 제품은 목재, 고철이었지만 1999년 이후부터는 주로 해산물, 수산물, 강철, 철광석, 합성수지, 석유액화가스, 비철금속, 한약재, 生絲, 갈대 등이었다.

셋째, 중국과 북조선의 상호 투자와 기타 형식의 경제협력

199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북조선의 상호 투자는 규모가 형성되지 않았다. 중국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통계에 의하면 1999년 말까지 북조선경내의 중국 투자기업 중에서 중국대외무역경제부의 허가를 받았거나 이미 등록을 마친 기업이 총 13개(조선의 통계는 60여개)이고 투자총액은 272.7만 달러이다. 투자 분야는 주로 음식업, 백화점 등 서비스업종과 음료수, 해산물, 양식, 경공업 등 생산업종이고 투자방식은 주로 설비, 물자, 기술이다. 현재 총체적인 투자효익은 이상적이 되지 않지만 백화점과 식당의 경제효익은 상대적으로 괜찮다.

북조선에 투자한 중국회사 중에는 국가 경제무역부의 비준 혹은 등록을 거치지 않은 회사들도 포함되는데 그 대부분이 북조선의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에 집중되어 있다. 조선의 대외경제합작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한 수치에 의하면 1998년 말까지 나진-선봉지역의 외자기업은 총 113개이고 총 투자액은 8800만 달러이다. 그중 중국 회사는 63개로서 외자기업 총수의 56%이지만 그 대부분이 규모가 작은 상업 회사이기에 투자총액이 북조선 외자 총액의 20%이다. 나진-선봉의 외자기업 중에는 중국의 홍콩 회사들도 포함된다. 홍콩 기업총수는 외자기업 총수의 10%이지만 투자액수는 외자총액의 35%에 달한다. 그중 홍콩 Emperor Group 회사는

이미 6000 만 달러를(1997 년-2000 년) 투자하여 식당, 숙소, 오락, 도박 등을 계열화한 대규모 호텔을 건설하여 1997 년 7 월부터 호텔 오락부문의 경영이 이미 시작되었다.

중-조 경제협력에는 노무협작도 포함된다. 중국 대외무역경제협작부의 통계에 의하면 1999 년 말까지 중국이 북조선에서 도맡은 노무협작 계약총액이 9871 만 달러였고 완성한 영업 총액은 3241 만 달러이며 과건한 인원은 4449 명이였다. 1999 년 중국이 북조선과 새로 체결한 노무협작 계약총액이 817 만 달러인데 완성된 영업 총액이 1349 만 달러이고 과건된 인원이 1245 명이며 12 월말까지 북조선경내의 중국 노무인원은 1166 명이였다.

이밖에 중국은 조선의 청진, 나진, 선봉 등 3 개 항구를 빌려 조선 나진항부터 한국의 부산항까지의 해상 컨테이너 정기 항로를 개설하였다.

중국과 북조선의 투자는 상호적인 것이다. 중국 대외무역경제협작부에서 발표한 《실제 외자 이용 국가(지역)별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에 대한 북조선의 직접 투자는 1996 년에 1182 만 달러, 98 개 투자 국가 중에서 35 위였고 1997 년에 1185 만 달러, 124 개 투자 국가 중에서 34 위였다. 하지만 1998 년부터는 조선의 직접 투자가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북조선에 투자한 중국 기업의 규모가 작은 원인은 앞에서 제시한 북조선의 경제난과 회사의 지불 능력과 신용이 극히 낮은 등 소프트환경의 차질에 있거니와 하드환경의 차질에도 있다. 예를 들면 수도, 전기, 통신, 도로, 교통 등 인프라시설이 회사 설립의 가장 기초적인 요구도 만족시킬 수 없어 외자기업이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고 투자 효익도 논할 수 없었다.

넷째, 중국정부가 북조선에 대한 경제원조

북조선의 경제난에 대해 중국 정부는 줄곧 아낌없는 원조를 주었다. 1990 년대에 들어서 이러한 원조가 더 부단히 진행되었는데 주로 공업, 농업, 과학기술, 교육, 체육, 위생 등 면에서 표현되고 더 중요하게는 에너지, 식량, 농업생산수단 등 면에서 표현되었다. 하지만 중-조 두 나라의 특수한 외교관계로 특히 북조선의 원인으로 중국과 조선 두 나라는 이러한 경제 원조를 대외에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연간 중국의 요구에 의해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1996 년 5 월, 중-조 두 나라가 체결한 《중-조 경제기술 교류 협의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금후 5 년 동안 중국은 매년 조선에 50 만 톤의 식량을 제공하고 120 만 톤의 석유와 150 만 톤의 석탄을 제공한다. 둘째, 이상 물자의 절반은 무상으로 원조하고 나머지 절반 물자는 국제 가격의 1/3 로 계산한다. 셋째, 기타 소비재의 80%는 우대 가격으로 제공한다. 이밖에 중국의 유관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최근연간 중국이 조선에 제공한 원조로는 아래와 같다. 1997 년에 입쌀 17 만 톤을 무상 원조하였고 1998 년에는 식량 10 만 톤, 화학비료 2 만 톤, 원유 8 만 톤을 무상 원조하였으며 1999 년에는 식량 15 만 톤, 코크스 40 만 톤을 무상 원조 하였고 2000 년에는 학생 교복 만 벌 이상을 원조하였다. 2000 년 4 월에 중국 료녕성 정부에서는 조선에 2 만 그루의 무균 홍부 사과 묘목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술 인력을 조선에 파견하여 기술 지도를 하게 하였다. 같은 해 4 월 19 일 중국에서는 조선에 한더미의 기상 관측 설비(10 세트의 단파 단면 통신기기와 1000 개 항공 탐사 기구)를 증정하였고 2001 년에는 경유 15000 톤은 무상 원조하였다. 이미 공개된 수치로 볼 때 중국은 결코 북조선의 제일 큰 무상 원조 국가는 아니었지만 중국의 대외 원조 총액 중에서 북조선에 대한 원조가 1/3 이상이었다.

중국이 조선에 대한 원조는 무상 원조를 제외하고 또 유상 원조와 우대 가격 형식이 있다. 우대 가격은 주로 에너지 원조에서 사용된다. 매년 중국은 송유관을 통해 북조선에 끊임없이 석유를 수송하였고 그 가격은 국제 석유 가격의 1/2

보다 조금 높다. 이밖에 중-조 국가 급 무역에서 중국은 장기간 거액의 무역 흑자 지위였지만 이는 줄곧 북조선의 요구에 의해 청산되어 중국의 무상 원조로 변하였다.

과학기술면에서도 중국은 북조선에 많은 원조를 제공하였고 1987년 12월 중-조 양국은 10년 동안의 《중-조 장기적 과학기술 협의서》를 체결하였다. 2001년 9월부터 상해 동제대학교, 복단대학교 등에서는 북조선 유학생을 접수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同濟대학교, 復旦대학교, 길림대학교에는 백여명의 북조선 유학생들이 있으며 중국 정부는 정부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다.

2. 1990년대이래 중-조 경제 관계의 특징 및 발전 추세

첫째, 1990년대이래 중-조 경제 관계의 특징

1990년대이래 중-조 경제 관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선명한 특징이 있다.

(1) 전반적인 규모가 상당히 작고 북조선 국내 경제 형세의 변화와 국제 비경제적 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현재 중-조 무역액은 5억 달러도 달하지 않는다. 북조선에 대해서 중국은 둘째로 큰 무역파트너이지만 중국에 대해서 5억 달러의 무역액은 중국 무역 총액 중에서 말할 가치도 없는 미약한 것이다. 중-조 무역의 규모가 작은 원인이 주로 북조선의 국내 경제 발전 방침과 경제 형세의 제한을 많이 받고있는 동시에 현재 조선의 대외관계 특히는 남북 간의 관계의 영향도 많이 받고있다. 유관 통계 자료의 분석에 의하면 북조선의 대외관계 특히는 남북 간의 관계가 완화되면 북조선과 한국간의 경제협력이 강화되지만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오히려 약화되었다. 이는 북조선의 대외무역 능력에 상당한 차질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대한 무역이 증가 될 때면 중국의 무역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밖에 북조선과 중국의 경제 협력 상황은 중-조 양국 간의 정치 관계와 밀접한 연계가

있다. 중-조 정치 관계가 완화 될 때면 양국 간의 무역 규모도 확대되고 반대면 하강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중-조 무역 규모는 일정한 정도에서 양국 간의 정치 관계를 표현한다.

(2) 무역 품종이 단조롭고 북조선의 수요가 위주이다.

1990 년이래 중-조 무역의 상품 구조는 1980 년대에 비해 비교적 큰 변화가 있었지만 총체적으로 여전히 단조롭다. 1980 년대 조선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상품은 주로 코크스, 석유, 식품 가공설비, 가정용전자제품 생산설비와 경공업제품 등이었다. 1990 년대에 들어서 조선의 수입상품에서 1000 만 달러를 초과하는 상품은 주로 기계제품, 전자제품, 원유, 가공유, 입쌀, 옥수수, 석탄, 면사, 원단, 강철, 곡식과 곡식가루 등이었다. 그밖에 화학공업제품, 고무제품, 전기기구, 전자제품 등도 수입하였다. 그중 식량과 식품의 수입은 해마다 증가되었지만 석유와 광물자원의 수입은 변화가 크지 않았고 나머지 상품의 수입은 해마다 감소되었다. 이는 북조선이 이러한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식량과 식품 수입의 증가로 지불 능력이 하강되었으므로 부득이 식량과 식품을 제외한 기타 상품의 수입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990 년대에 들어서 북조선이 중국에 수출하는 상품 중에서 10 만 달러를 초과하는 상품은 주로 원목, 강철반제품, 고철, 가공유, 냉동물고기 등이다. 이는 1980 년대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었으므로 북조선의 수출능력은 큰 발전이 없는 것을 말해 주었다.

중-조 무역의 상품구조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완전히 다른 특징이 있다.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에서 중국은 수출하고 싶은 상품을 수출하고 수입하고 싶은 상품을 수입하였지만 북조선과의 무역에서는 북조선에서 수요되는 상품을 수출하고 북조선에서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을 수입하였다. 이러한 무역관계는 단지 조선의 경제 상황만 반영할 뿐 중국 시장의 수요는 반영할 수 없었다.

2 중조경제무역관계의 발전추세

현재 북조선의 경제 형세와 금후 발전 추세로부터 중-조 무역의 규모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무역총액이 약 5-6 억 달러의 정도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상품구조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북조선이 수입하는 대중 상품들로는 식량, 석유일 것이다. 이밖에 강철은 조선이 중국에 수출하는 주요 상품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상품으로 변할 것이다. 이는 중국의 강철 공업이 신속히 발전하고 강철 상품의 수출 능력이 제고되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조선의 강철 공업이 쇠퇴해졌음을 의미한다.

금후 일정한 시일동안 중-조 무역의 규모와 상품 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 주요한 제약요인은 조선 측에 있다.

첫째, 금후 몇 연간 조선은 여전히 "자립적인 민족경제 건설", "중공업 우선 발전" 등 방침을 실행 할 것이고 대외무역은 경제 발전에서 여전히 부차적인 위치에 처해있을 것이다. 이는 대외무역의 발전을 제약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될 것이다.

둘째, 북조선의 경제난은 구조적인 문제로서 그 주요한 원인은 북조선의 경직된 계획 경제 체제에 있다. 그러므로 조선이 경제 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진행하기 전에는 경제난의 근본적인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대외무역의 비약적인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셋째, 중-조 무역 중 중국은 시중 무역 흑자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표 2 를 참고). 하지만 이러한 무역 흑자는 중국에 대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이는 조선이 지불 능력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대부분 상품의 대금을 갚을 수 없어 결국 중국이 조선에 대한 무상 원조로 끝나므로 중국으로 하여금 엄청난 손실을 받게끔 하고 있다. 중국의 시장 경제가 점점 성숙되어가고 있는 현재 이런 불평등한 무역은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점차 적어지고 있다. 중-조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국정부가 중-조 관계에 대한 중시를 설명하여주고 있다.

향후 북조선의 대외무역 정책의 조절과 대외 관계의 개선과 더불어 조선의 대외 경제관계도 발전 할 것이고 무역 상대도 증가될 것이지만 대외무역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일정한 시일동안 지속 될 것이다.

중국과 북조선의 민간경제무역협력, 특히는 변경무역도 그 발전 추세로 보아 단기간에는 큰 발전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주요한 원인은 여전히 조선 측에 있다.

첫째, 조선과의 교역 조건이 너무 나쁘고 계약이행율이 너무 낮을 뿐만 아니라 사기행위도 자주 발생한다. 조선과 길림성의 무역에서 계약이행율이 시종 너무 낮은바 최상의 상황이라도 30%을 초과하지 못하였는데 최근연간은 10%이하로 하강되었다. 이는 주로 조선의 지불 능력이 낮은 것도 있으며 북조선 측에서 물건 인도 시 일방적으로 계약에 규정된 상품의 품종을 개변시켜 계약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하는 관계도 있다. 조선 측은 늘 한가지 상품으로 중국 측의 여러 회사들과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상품 대금을 협잡하였다. 이밖에 북조선 회사는 상품 대금을 오래 동안 끌며 갚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회사들로 하여금 주저하게 하는 것도 많다..

둘째, 조선 세관에서 비용 징수 문제가 심각하다. 1990년대 초부터 조선 측의 요구에 의해 길림성 대외무역 회사들은 중국 측의 트럭을 파견하여 조선에서 지정한 지점에서 화물을 접수하였는데 1996년 전까지 이에 대해 조선 측은 아무런 비용도 징수하지 않았다. 하지만 1997년부터 조선 측은 많은 면에서 비용을 징수하여 중국 측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원가를 대폭적으로 높였기에 중-조 무역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셋째, 조선 측의 공무원들의 행위가 규범화되지 않았는바 물품을 강요하는 현상이 비교적 엄중하다. 최근연간 조선 측의 세관, 변경 검사소, 동식물 검역소, 대외무역 주관부문 등

유관부문의 공무원들이 중국 무역상들에게서 물품을 강요하는 상황이 날 따라 엄중해지며 만약 만족을 얻지 못할 경우 통관 시 많은 구실로 어려움을 만드는데 심지어 중국 측 인원이 조선에서 업무 상담을 진행하는 것마저 금지시킨다. 그러므로 매번 계약 체결의 승패는 조선 측 공무원 인원의 무리한 요구를 만족시키는가 못하는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이는 중국 측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중국 측 기업인들의 감정을 해치게끔 하는 것이다. 만약 이상의 문제들이 해결을 얻지 못한다면 중-조 민간 경제 무역이 새로운 발전을 가져오기 어려운 것이다.

3. 중-조 경제협력이 조선 사회 생활에 미치는 영향

중-조 경제협력이 북조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 구 소련이 해체되고 동유럽이 급변한 후 중국은 북조선의 제일 큰 무역파트너와 경제 원조국으로 되었고 조선의 제일 유력한 식량, 에너지와 일용생활필수품의 공급원으로 되었다. 이는 북조선이 사회주의 국가 시장을 잃음으로 해서 생기는 에너지, 원자재, 외화 등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비할 바 없는 큰 기여를 하였다.

둘째, 농업생산관리체제의 폐단과 연속되는 자연 재해로 북조선은 전에 없는 식량기근이 들어 많은 사람이 굶어 숨지었는데 중국의 식량 원조와 변경무역으로 수입한 식량이 조선의 기근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는 북조선의 사회 동란을 방지하고 사회 질서와 사회 안정을 유지시키며 국가 정권을 공고히 하는데 추산하기 어려운 큰 기여를 하였다.

셋째, 변경무역과 빈번한 인원 왕래를 통하여 각급 관원을 포함한 북조선 국민들은 개혁 개방이 중국에 가져다준 획기적인 변화를 친히 목격함과 동시에 북조선이 개혁개방을 거절함으로 하여 겪는 엄청난 어려움을 깊이 체험하였으므로 개혁개방을

아주 갈망하고 있다. 이는 북조선의 금후 발전에 아주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1998 년부터 북조선은 400 여명의 관원들을 미국, 중국, 호주, 오지리, 싱가포르 등 나라들에 파견하여 시장 경제에 대해 학습하게끔 하였다. 2001 년 중-조 두 나라 정상(頂上)상호 방문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에 대해 충분히 긍정하였다. 얼마전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 경제 변화 과정과 통일 후의 독일 국가 구조를 연구하는 전문 소조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는 김정일 위원장이 개혁개방에 대한 관점을 개변했을 뿐만 아니라 개혁개방을 진행하기를 기대함을 표시한다. 북조선의 백성들은 중국식의 개혁개방을 더욱 기대하고 있다. 중국에서 머물고 있는 북조선 불법월경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조선 백성들은 개혁개방 후 중국의 변화에 대해 일정한 인식이 있고 또 아주 부러워하며 조선의 관원들도 중국의 관원처럼 조선을 이끌어 개혁개방의 길을 걷기를 아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금후 조선의 개혁개방의 장애를 감소할 뿐만 아니라 거대한 추진력으로 될 수도 있다.

넷째, 중국의 개혁개방의 가일층 발전과 WTO 의 가입은 향후 북조선과의 무역에서 시장 경제 원칙과 경제 효익을 진일보 강조하게 될 것이며 이는 조선으로 하여금 사유방식을 개변하고 대외무역 정책을 개변하며 다방면의 대외무역 방침을 제정함으로써 더 많은 무역파트너를 적극적으로 찾도록 할 것이다. 이는 조선으로 하여금 경제상에서 국제 사회와 발맞출 수 있고 나아가서 국제사회와의 융합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부 록

발 표 자: 陳龍山(ChenLongSan)

중국 길림성 동북아연구센터 소장, 교수

중국 길림성 조선. 한국연구회 회장

Panel: 경제, 논문 제목은 위에 쓴 것과 같음

연구분야: 조선, 한국의 정치, 경제 문제; 동북아 국제관계 등

E-mail: CLS@public.cc.jl.cn

전화/팩스: 0431-4638363, 0431-5199425

주 소: 187 ZIYOU ROAD CHANCHUN CITY P. R. CHINA